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일동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지혜의 샘터**  
〈2018-3호〉

발행처 : 일동중학교 도서관  
편집인 : 도서부  
발행주기 : 월 간  
발행일 : 2018.05.31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99번길 39 홈페이지:www.ildong.ms.kr Tel.532-3813

**도서관에서 알립니다.**

- 학생증(대출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꼭 챙겨서 오세요.
- 도서관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할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책이나 잡지 등은 찢거나 낙서하지 말고 소중히 다뤄주세요.

☒ **도서대출 BEST 5!**

순위	서명
1	손가락에 잘못 떨어진 먹물 한방울
2	능력 있는 시녀님
3	메디컬 환생
4	신혼의 주인
5	버림받은 황비

☒ **다독왕은?**

순위	학년 반	이름	대출권수
1	3-2	구OO	34
2	2-3	김OO	22
3	2-2	조OO	15
3	3-3	유OO	15
5	3-1	하OO	14

☒ **다독반은?**

순위	학년 반	대출수
1	3-2	49
2	2-3	39
3	3-3	32
3	2-4	32
3	3-1	32

(기간: 2018. 05. 01 ~ 05. 31)

★ 다독왕 5명은 **06월 한 달 간**  
대출권수를 3권으로 늘려드립니다.

☒ **도서관 이용안내**

● **도서관 이용시간**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30분  
휴관일 : 공휴일, 개교기념일, 전교행사일 등

☞ 수업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대출 권수 : 1인 2권
- 대출 기간 : 7일이며, 학습만화 등 모든 만화 형태의 도서는 대출되지 않습니다.
- 대출도서의 연체 시 연체일 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 참고도서, 간행물은 반별 수업활용자료로만 대출 가능하며, 개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 시 동일도서나 책값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브루클린의 소녀 / 기욤 뫼소 지음 ; 양영란 옮김.**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의 실종,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의 다채로운 면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언론과 정치의 거대한 스캔들까지 다루고 있는 범위가 꽤 큽니다. 개인과 거대 담론 사이의 힘겨루기는 언론의 오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도된 거짓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한 순간의 선택이나 순간적인 판단이 일을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아주 약한 개인이기도 합니다.

죽음, 감금,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인간은 본래 그렇게 타고난 존재들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답을 찾아야 할까요? 책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제목이 ‘브루클린의 소녀’ 인지 찾아보세요.

**스타벅스에 간 소녀 / 소피 킨셀라 저 ; 이혜인 옮김.**

열다섯 살 주인공 오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로 대인기피증에 걸린 학생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과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검정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지 않고서는 가족조차도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 된 오드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상처받기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음식점에도 가고 싶지만 그의 간절한 마음과는 반대로 점점 자신을 혼자만의 공간에 가두게 됩니다. 게임중독에 빠진 오빠와 약간은 철없는 아빠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는 완벽에 가까운 엄마의 이야기는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조미료와도 같습니다. 잔잔한 미소까지 선사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오드리의 안쓰러운 이야기가 잘 어울려집니다.





### 3학년 이하은의 베트남일지



베트남에서 엄청 유명한 바나산 바나힐 테마파크에 갔다.

진짜 베트남에 유럽이 있는 줄 알았다. 다른 곳은 중국문화나 동양에 있는 나라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 동양 느낌이 많이 났는데 바나산은 프랑스가 지어서 그런지 진짜 유럽에 가있는 느낌이

었다. 바나산에는 놀이기구가 모여 있는 놀이공원 같은 곳도 있었다.

그리고 바나산이 엄청 높은 곳에 있어서 케이블카를 타고도 20분동안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만큼 고지에 있어서 바나산 밑 에랑 날씨가 달라서 신기했다.



베트남의 바구니 배도 탔다. 바구니 배는 바구니 모양의 배를 타면 현지직원 분들이 노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다. 근데 그냥 이동만 하면서 옆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원 분들이 나무 말린 걸로 만

든 메뚜기나 꽃반지도 기념품으로 주시고, 한국노래를 틀고 춤도 춰주시고 공연도 해주신다.



또 베트남의 대표적인 다리인 용다리의 야경을 보러 갔었는데, 용의 눈모양이 하트여서 귀여웠다. 주말 밤 9시마다 용이 물, 불, 연기를 뿜는다는데 그걸 못봐서 조금 아쉬웠다.

여러분들도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베트남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베트남 하롱베이 - 네이버

베트남 용다리 불뿜는 모습 -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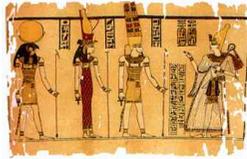
# 책에 대한 모든 것

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그림이나 문자로 기록하기 위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의 책의 형태는 어떠했을까요 ~ ??



**점토판**

- \*최초의 형태
- \*무겁다.
- \*운반이 불편
-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



**파피루스**

-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주재료
- \*가볍지만 잘 부서짐
- \*보관 용이
- \*이집트에서 발견



**양피지**

- \*양이나 송아지의 가죽을 벗겨 만들
- \*현대의 책 형태의 기원
- \*화려한 제본이 가능
- \*중세 유럽에서 사용



죽간

**죽간**

- \*“책(冊)”이란 문자의 기원
- \*대나무를 쪼개 엮어서 만들
- \*두루마리의 형태
- \*중국에서 발명

**종이의 발명**



종이가 발명되고 활자술이 발명되면서 책의 발달은 급속하게 이루어져 현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흔히 접하는 많은 책들..이런 발달 과정을 생각하며 읽어보면 어떨까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세계의 도서관

세계의 4대 도서관 중 하나인 영국의 **대영도서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영도서관은 1750년, 대영박물관과 동시에 건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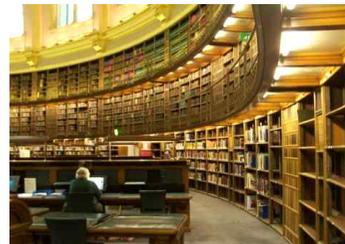
영국 왕실의 장서들을 수집, 보관할 목적으로 세워져서 처음엔 이용자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의회 법령에 ‘학문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로 이용자를 제한해 놓았을 정도니까요...

도서관 설립 초기엔 하루에 10명 정도의 이용자가 다녀갈 만큼 이용율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서와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의 책임 사서인 안토니오 파니치(Antonio Panizzi)가 7번째 열람실을 설계하게 됩니다.

1854년에 시작하여 1857년에 완공된 이 건축물은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영도서관은 대영박물관이 설립될 때 <도서부>로 출발했고, 1972년에 <대영박물관 도서관>으로 독립하였는데, 35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세인트 판크라스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박물관 내의 도서관은 남겨두고 대부분의 책들은 영국의 국립도서관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다양한 문화재와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는 대영박물관도 함께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토머스 칼라일 일화-

한 남자가  
2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천 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완성했다.  
그는 원고를  
서재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웃집 하녀가  
원고를 난로 지피는 데 사용해 버렸다.

하루아침에 2년 간의 노력이  
사라졌다는 걸 안 남자는 크게 절망했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한 석공이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는 것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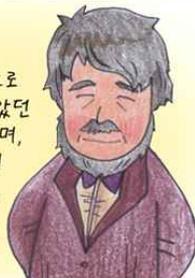
얼마 뒤 석공이 일하던 곳을  
찾아가 보니, 그곳에는  
원고가 완벽히 완성되어 있었다.

“그래!  
나도 오늘부터  
한 장씩 써나가자.  
예전에도 그렇게  
완성했지 않은가!”



남자는 다시  
첫 장부터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이전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이 바로  
독특한 해석과 문장력으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프랑스의 역사'이며,  
남자의 이름은 영국의  
토머스 칼라일이다.



## 날 말 퍼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가로 열쇠

1. 남의 글을 몰래 따서 씬
3. 오늘, 내일, ○○
5. 유럽
7. 머리 한쪽이 아프면
9. 음식을 많이 차리면 휘어지죠
11. 쌀을 질는 곳
13. '끝내주는 사람' 을 이르는 유행어
15. 출입
16. 골프에서, 기준타수보다 하나 많은 타수로 공을 홀에 넣는 일
17. 불교에서, 감자기 깨달음. ○오

### 세로 열쇠

2. 뚱뚱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3. '여자의 일생' 을 쓴 프랑스 소설가
4. 추석 때 빚어 먹는 떡
6. GLASS
8. 새 중에 두 번째로 큰 새. ○루○
10. 사람 숫자에 따라 의견을 정하는 방식
11. 낮 12시
12. '소낙비' 의 표준어
14. 생선을 소금에 절인 반찬. ○반

### 퍼즐 정답자

퍼즐 정답을 풀어서 도서관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막대사탕**을 드려요~^^  
선착순 **5명**까지이니, 퍼즐을 풀면 **3층 지혜의 샘터**로 오세요~